

‘끝내기’ KIA 김규성, 시즌 완주 ‘마침표’

삼성과 시즌 최종전 9-8 승
홈런·9회말 끝내기 희생타
최형우·전상현과 ‘폴타임’
14일 KBO 가을리그 참가



아쉬웠던 2025시즌이었지만 김규성의 ‘완주’는 빛났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3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끝으로 올 시즌 144경기 대

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가을잔치’ 리허설에 나선 4위 삼성과 최종전을 치른 8위 KIA는 9-8 끝내기 승리로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김규성이 마지막 순간 가장 빛난 선수가 됐다.

KIA는 최종전 선발을 자처한 양현종이 2.2이닝 9피안타(1피홈런) 2사사구 4탈삼진 8실점을 기록하면서 초반 싸움에서 밀렸지만, 9회 무사 만루에서 나온 김규성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완성했다.

시즌 1호, 통산 79번째 개인 첫 번째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장식한 김규성은 2회에는 그라운드를 돌았다. 김규성은 2-5로 뒤진 2회말 무사에서 육선엽의 3구째 143km 직구를 공략해 우중간 담장을 넘겼다. 시즌 3호포였다.

기본 좋은 홈런에 끝내기까지 장식한 김규성에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완주’다.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던 김규성은 이후 단 한 번도 엔트리에서 빠지지 않고 최종전날 승리의 주역까지 됐다. 유난했던 부상 시즌이었던 만큼 올 시즌 KIA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았던 선수는 ‘최고 참’ 최형우와 필승조 전상현 그리고 김규성까지 3명이다.

부상 없이 또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만든 폴타임 이기에 김규성에게는 더 의미 있는 시즌이다.

물론 팀 생각을 하면 아쉬움이 더 크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도 출전해 우승반지까지 차지했던 김규성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6월에는 0.342의 타율을 찍으면서 ‘함평 타이거즈’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KIA는 뜨거웠던 6월 기세를 잊지 못하고 디펜딩 챔피언에서 8위로 전락했다.

김규성은 “팀 성적을 생각하면 아쉽지만 마지막까지 많은 팬분이 찾아와 주셨고,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올 시즌에 한 번 끝내기 찬스를 놓쳤다. 다음에 상황이 오면 끝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끝낼 수 있어서 후련했다”고 짜릿했던 끝내기 순간을 이야기했다.

건강하게 시즌을 잘 끝낼 수 있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김규성은 “안 아프고 팀을 위해 야구를 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다. 부상 선수가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서도 채울 수 있는 게 내 장점이다 보니까 팀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도 했다. 그래서 좋은 경기도 보여드릴 수도



올 시즌 개막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KIA 내야수 김규성이 최종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의미 있는 시즌을 보냈다. 김규성이 지난 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시즌 최종전에서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친 뒤 기뻐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있었고 많은 걸 느낀 한 해인 것 같다”고 돌아봤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시즌이자 많은 경험을 쌓고 성장한 시즌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긴장감을 가지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김규성은 “어린 선수들이 잘해서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도 보여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역시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다. 어린 선수들과 경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언제든지 어린 선수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똑같이 준비를 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모처럼 가족과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낸 김규성은 일찍 스파이크 끈을 조여 댔다.

김규성은 14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KBO 가을리그에 참가해 초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에 맞춰 김규성은 9일 교육리그 선수단과 훈련을 하며 새 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유망주 실력 점점 나선다

KBO Fall League 14일 울산서 개막…국내외 11개 팀 열전



‘가을잔치’에서 탈락한 KIA 타이거즈가 울산에서 유망주들의 실력 점검에 나선다.

KBO가 주최하고 울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5 울산-KBO Fall League가 14일 개막한다.

KIA와 함께 삼성, LG, 롯데, NC, 고양, 독립리그 올스타, 대학 선발팀 등 국내 8개팀이 참가한다. 호주 멜버른 에이스스, 일본 독립리그 선발팀, 중국 CBA 소속 장수 휴즈홀스 등 해외팀도

출격하면서 총 11개 팀이 11월 1일까지 3주간의 열전을 벌인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리그에서 각 팀은 13경기씩 예선 65경기를 소화한다. 경기는 울산 문수구장, 김해 상동구장, 창원 마산구장, 기장 KBO 야구센터에서 진행된다. 결선 라운드는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다.

예선을 통과한 4팀이 31일 4강전을 펼치게 되며, 11월 1일 오후 3시에는 결승전이 열린다. 우승팀에 2000만원, 준우승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KIA는 14일 대학 선발팀과 문수구장에서 리그 첫 경기를 갖는다. 이어 15일 NC(마산), 16일 중국(상둥), 17일 독립리그(울산)와 대결을 이어간다.

18일 휴식일을 보내는 KIA는 19일 일본, 20일 호주, 21일 LG와 문수구장에서 연달아 대결을 갖는다. 22일에는 마산으로 자리를 옮겨 호주와 만난다.

KIA는 23일 휴식일 뒤 24일 독립리그(기장), 25일 고양(울산), 26일 LG(울산)와 경기를 펼친다. 28일 상동에서 롯데를 상대하는 KIA는 29일 문수구장에서 열리는 고양과의 경기로 예선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리그는 다양한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엔트리 없이 진행된다. 지난 9월 열린 2026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한 내년 신인 선수도 경기에 투입할 수 있다.

우천 등으로 취소된 경기는 예비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원태 호투…삼성, PO 진출 청신호

준플레이오프 1차전 SSG에 5-2

최원태 6이닝 8탈삼진 무실점



삼성 라이온즈가 최원태(사진)의 눈부신 호투 속에 준플레이오프 주도권을 잡았다.

삼성은 9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KBO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1차전에서 선발 최원태가 6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는 가운데 이재현과 김영웅이 홈런포를 쏘아 올려 5-2로 승리했다.

와일드카드(WC) 결정전을 힘겹게 통과했던 삼성은 이로써 플레이오프(PO)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5전 3승제로 열린 역대 준PO에서 지난해까지 1차전 승리 팀이 PO에 진출할 확률은 69%(16번 중 11번)였다.

삼성과 SSG의 준PO 2차전은 10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삼성은 헤르손 가라비토, SSG는 김건우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삼성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백라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았다.



1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이재현은 SSG 선발 미치 화이트의 조구 152km 직구를 통타해 좌측 펜스를 살짝 넘겼다.

역대 포스트시즌에서 1회초 선두타자 조구 홈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삼성은 3회초 다시 폭발한 홈런포로 점수를 추가했다.

선두 타자 르윈 디아즈가 중전안타를 치고 나간 뒤 김영웅이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쏘

아 올렸다.

기세가 오른 삼성은 4회초에도 선두 타자 구자욱이 볼넷을 고른 뒤 르윈 디아즈가 우중간 2루타를 날려 1점을 보탤다.

계속된 1사 2루에서는 김지찬이 우중간 적시타를 날려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6회까지 2안타에 그치던 SSG는 삼성 마운드가 교체되자 반격에 나섰다.

SSG는 7회초 1사 후 최정이 삼성 두 번째 투수 김태훈을 상대로 볼넷을 고른 후 고명준이 좌월 투런 홈런으로 2-5로 추격했다.

8회말에는 2사 후 기예르모 에레디아와 한유섬의 연속 안타에 이어 최정이 볼넷을 골라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홈팬들의 뜨거운 환호속에 타석에 나선 고명준이 3루 땅볼에 그치고 말았다.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은 9회말 김재운이 마운드에 올라 삼자범퇴로 팀 승리를 지켰다.

삼성 선발 최원태가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뽑았고 2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SSG 타선을 막아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 경기 후 데일리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최원태는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8명의 투수를 투입한 SSG는 선발 화이트가 볼과 2이닝 동안 홈런 두 방을 포함해 6안타로 3실점 한 게 패인이 됐다.

팀 타선도 6안타에 그치며 삼성 마운드를 공략하는 데 실패했다.

/연합뉴스

김하성 귀국 “WBC 준비 최선”

“어깨 거의 회복…다음 시즌 문제 없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뛰는 내야수 김하성이 9일 귀국했다.

김하성은 2025시즌 48경기에 나와 타율 0.234(171타수 40안타), 홈런 5개, 17타점, 도루 6개의 성적을 냈다.

2024시즌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던 그는 올해 1월 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 최대 3100만 달러(약 440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시즌 도중 입은 어깨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다가 7월 초부터 출전을 시작했으며 9월에는 애틀랜타로 이적했다.

탬파베이에서 타율 0.214, 홈런 2개, 5타점, 도루 6개를 기록한 그는 애틀랜타 이적 후인 9월에는 타율 0.253, 홈런 3개, 12타점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2026시즌 애틀랜타 잔류 또는 다시 FA 시장에 나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김하성은 “한국 돌아와서 좋고, 잘 쉬면서 내년 시즌 준비를 잘해야겠다”며 “부상이 계속 있어서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잘 이겨낸 것 같다”고 2025시즌을 총평했다.

시즌 도중 이적에 대해 그는 “느낌이 다르긴 했지만 구단과 대화를 하고 이뤄졌던 일여서 나쁘지는 않았다”며 “9월부터 몸 상태가 많이 좋아



져서 경기에도 계속 출전했고, 그런 부분에서 내년 시즌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하성은 “2025시즌을 점수로 평가해달라”는 부탁에 “많은 경기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기 힘들다. 복귀 후에도 많은 경기에 빠져서 사실 제가 딱히 이번 시즌에 한 게 없는 것 같다”며 “다음 시즌 준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 한 달 동안 좀 보여줬다고는 생각한다. 이번 비시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3월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김하성은 “우리나라가 최근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연합뉴스